

양조장 미술파티... 먹고 마시고 그리다



담양 '해동주조장'에서는 오는 28~29일 24시간 동안 '드로잉 파티-술공장에서 예술에 취하다'전이 열린다. <담양군문화재단 제공>

2008년 문 단은 담양 해동주조장

폐사업시설활용 재생사업 선정

28~29일 '24시간 페스티벌'

작가 100명 자유로운 드로잉

일반인 참여 가능... 판소리 등 공연

29일~8월 7일 작품 전시도

1960년대 문을 연 담양읍 '해동주조장'은 50년이 넘는 동안 서민의 술 '해동막걸리'를 만들어왔다. 담양 읍내에서 가장 깨끗하고 맛있는 물로 유명한 곳에 자리잡은 덕이었다. 지난 2008년 즈음 주조장이 문을 닫으면서 누룩 창고, 술 제조 창고 등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돼 왔다. 일부 공간만 창고로 임대해 내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랜 기간 버려졌던 해동주조장이 문화시설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이 진행한 '폐사업시설활용재생사업'에 선정되면서 담양읍내에서 전통 방식으로 막걸리를 만들었던 마지막 공간인 해동주조장엔 막걸리 생산에 큰 역할을 했던 우물을 비롯해 다양한 역사·문화적 가치들이 공존하고 있다.

3년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담양군과 담양군문화재단은 주조장의 정체성을 살려 '술'을 주제로 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획하고 오는 9월께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한다.

재단은 주조장의 변신을 앞두고 공간을 알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낡은 해동주조장을 유쾌한 문화예술 파티장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다. 함께 모여 창작하고, 소통하고, 먹고, 마시는 축제 '드로잉 파티-술공장에서 예술에 취하다'전이 오는 28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열린다.

한부철·김준모·박용환·김종일·최정희·강동권·표인부·조윤성 등 광주·전남지역은 물론이고 서울·대구·안동 등 전국에서 온 작가 100명이 함께하는 대규모 미술 파티다. 서양화, 판화, 한국화,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참여했으며 일반 주민들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함께 작품을 만들고 음식을 나눌 수 있다. 참가자들은 24시간 동안 주조장에서

특정한 형식이나 격식 없이 자유롭게 드로잉을 한다.

행사 중간에는 공연도 준비돼 있다. 28일 오후 6시에는 '놀이패 만월'의 축하공연과 함께 기념식이 열리며 참여 예술인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예술인 파티와 현장 미술 활동이 펼쳐진다. 29일 오후 2시에는 '한승호 바다' 판소리 보존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선공전통예술원'의 공연이 열린다. 행사 기간 중 주최측은 세 차례에 걸쳐 다양한 먹을거리와 마실거리를 준비해 함께 즐길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담양군과 담양문화재단, 비영리법인 레지던스 회의에서 주관하며 김재성 작가와 독립큐레이터 정위상무씨가 예술 감독으로 참여해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페스티벌 중 제작된 작품은 오는 29일부터 10일간 현장에서 전시된다.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며 주말에는 다양한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군은 해동주조장의 건물 내·외관과 배치는 그대로 보존하되 현대적 디자인을 가미한 공간 조성을 통해 문화 예술명소로 만들어간다는 복안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의 개성 있는 작가들에게 자연스럽게 공간 리모델링에 대한 아이디어도 들을 예정이다.

정위상무 예술감독은 "전국의 작가들이 아무 격식 없이 시민들과 어울리며 창작하는 문화예술 파티"라며 "앞으로 조성될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도 자연스럽게 청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담양문화재단은 해동주조장을 알리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예술로 통하다-술터 파티'와 '해동 문화예술난장'도 열 예정이다. drawingparty2017.blog.me 문의 010-3906-166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시장으로 활용될 해동주조장 내부.

지미정 캘리그래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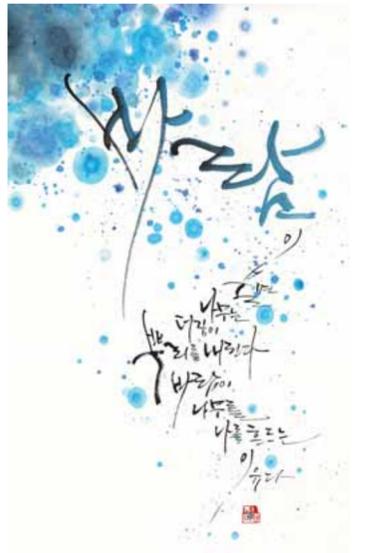
27일~8월 9일 장덕도서관

지미정 캘리그래피 개인전이 27일부터 8월 9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장덕도서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글씨를 먹어주마'다. 붓을 포함한 어떤 도구로든 표현하고, 배우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담아 정했다.

전시작은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격려, 치유와 용기를 주는 글씨이다. '얼굴 하나야 손가락 둘로 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해 눈감을 수밖에'(정지용 '호수') '바람이 불면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이유다'(바람) 등의 작품은 위안을 주고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지씨는 (사)한국문화예술연합회 광주지부장, 캘리그래피 디자인 '갑성향기' 대표를 맡고 있다. 조선대 평생교육원,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도 출강중이며 제6회 대한민국 캘리그래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오픈행사는 7일 오후 5시에 열린다. 문의 011-5211-696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바람'



목요 열린 국악 한마당

유세운 아쟁 연주회

내일 빛고를 국악전수관

구슬픈 음색의 아쟁 연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목요 열린 국악 한마당 유세운 초청 아쟁 연주회'가 27일 오후 7시 빛고를 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제22회 임방울국악제 기악 일반부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수상)을 수상한 유 씨는 이날 공연에서 '박종선류 아쟁산조 중 짧은산조'를 제자 김휘

원, 이수아씨와 함께 들려준다.

또 '윤운석류 산조합주'를 김준영(광주 시립창극단 상임단원)씨의 장단에 맞춰 거문고 연주자 장운혜(남도국립국악원 상임단원), 대금연주자 임항철씨와 연주하며 마지막 무대인 '구름 시나위'는 대금 주자 김승호,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 명장부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지희씨와 함께 선사한다. 무료관람. 문의 062-350-4557.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 장비 점검 8월 1~6일 임시휴관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이 장비점검 및 정비

를 위해 임시휴관에 들어간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3월 1일 개관 이후 평일·주말에 쉬없이 가동해온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6일까지 임시휴관하고 각종 시설, 센서, 음향·전자장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은 홀로그램 전용관을 비롯해 총 6곳의 미디어아트 특화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5개월여 동안 방문객 수 4만 3000여 명을 넘어서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방문이 잇따르는 등 광주지역 대표 문화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www.geumsoojang.com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